

이민자의 수용인식: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의 연계*

박 경 돈

국문요약

전세계적으로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착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자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관한 인식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이민자 수용에 대한 결정요인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탐색적 모형을 작성하였다. 부산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원에서 2016년 5월 수행한 '전국다문화의식조사' 1,000명의 표본을 이용하여 재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구조방정식 3가지 적합지수의 기준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강건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는 개인의 이주민 거부인식과 함께 개인 손실에 기반하여 공동체의 손실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은 개인의 손익이나 개인의 이주민 거부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개인 차원의 손익과 이주민에 대한 거부인식을 감안한 이민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이민자 수용인식,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 구조방정식 모형, 이주민 차별, 탐색모형

I. 서론: 이민자 수용인식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이민자의 증가가 목도된다. 각국 정부는 이민자의 증가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선별, 안착,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 학계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게 진행되었다(Rustenbach, 2010; Scheve & Slaughter, 2001; Tajfel & Turner, 1979). 해외에서는 연구자의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민자의 유입 및 정착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다(Schlueter & Wagner, 2008; Ward & Masgoret, 2008).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이민자의 수용 및 관련 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해외연구는 이민자와 정착국 시민 간 인식의 상호작용,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시민의 이해관계

* 본 연구는 2019년 8월 17일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부산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재분석한 것임을 밝힙니다.

변화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착국 사람들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이민자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참여에 대한 연구, 이민자와 정착국 시민 간 공동체 조성에 대한 연구, 이민자의 유입에 대한 시민의 찬성과 반감에 관한 연구, 이민자가 느끼는 정착국에서의 경제적 반감과 선호의 추정에 대한 연구 등으로 연구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Hernes & Knudsen, 1992; Passel & Fix, 2004; Schlueter & Wagner, 2008; Ward & Masgoret, 2008).

그러나, 해외의 연구 동향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이민자 수용에 대한 시민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하지 못했다. 정부가 이민자 정책을 설계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지만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주제가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이다. 표면적으로는 이민자의 수용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원숙연, 2011; 장지원·지영찬, 2017). 그동안 국내 기존 연구들은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면서 어떤 분야에 참여나 유입이 허용되는지, 왜 반대하고 불만족하는 지 등에 대한 분석(고재권, 2014)을 주로 수행하였다. 이처럼 시민을 대상으로 이민자의 수용에 대한 동의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주류이다(장지원·지영찬, 2017). 오랫동안 단일 민족국가이었던 탓에 이민자 수용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유입 필요성 및 우리 사회 기여도에 대한 찬반 수준(고재권, 2014)을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머물러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의 유입 규모, 유입 정도, 부문별 이민자 수용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 수용과 거부 및 찬반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개인 인식의 흐름이 어떤 사고의 전개과정을 거쳐 이민자 유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더 미흡하다. 특히 정착국인 우리나라 대중이 어떤 인식 경로를 통해 이민자 수용이라는 결정을 하는지 체계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정착국의 시민이 어떤 이유로 인해 이민자 수용을 거부하고, 어떤 요인이 이를 촉진하며, 또 어떤 관련성으로 인해 이민자의 수용인식이 변화되는지를 개인 인식의 연계관계에서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민자 수용인식의 연계 고리를 찾는다면, 정부는 합의된 수용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어떤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이민자 정책수립에 효과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민자와 정착국 시민 간 관계성 증진을 위한 이민정책 설계 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이민자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시민이 유입 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밝혀 정부의 이민정책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착국 시민의 입장에 근거한 모형을 구축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국가를 유지해 온 외국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에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식은 공동체 이익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동시에 점점 개인주의 사조가 강해지면서 자신의 이익도 동시에 고려한 수용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시민의 이민자 수용인식은 공동체의 득실과 개인의 득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연계관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구조방정식 기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나와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연계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고

자 한다.

II. 이민자 수용인식에 대한 문헌 연구

1. 수용인식의 결정요인

친이민자 인식과 반이민자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는 이민자의 수용인식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여 수용의 결정요인을 정리하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회적 요인

이민자 수용 시 결정요인 중 사회적 요인은 교류, 접촉, 갈등, 문화 등의 변인을 두루 포함한다. Rustenbach(2010)는 이민자 수용인식에 대해 여러 이론을 두루 섭렵하여 분석한 대표적 학자이다. Rustenbach(2010)는 반이민자 정서를 문화, 인적교류, 정치참여, 사회통합, 공동체 안전, 상호교류, 해외투자, 경제적 경쟁 등의 8가지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Rustenbach(2010)는 특히 지역과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유럽이민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이민자 수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적, 국가적 단위에서 인간 간 상호신뢰, 교육수준, 해외투자, 그리고 정치적 변인임을 밝혔다.

첫째, 사회적 교류나 접촉을 통한 친화적인 수용인식의 마련은 친이민자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집단 간 상호교류는 - 이민자와 토착민 - 두 집단 간 입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다 (Levine & Campbell, 1972; Tajfel & Turner, 1979). Berry(2006)는 이민자를 접촉한 양과 질은 이민자에 대한 수용인식과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한다. 고도의 인간적 신뢰감은 반이민자 정서를 줄이고 이민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지니게 한다(Hooghe, Reeskens, Stolle et al, 2006). 예를 들어, 상호 신뢰는 사회통합을 통한 이민자와 수용국 시민 간의 융합을 의미하며, 이민자의 수용성을 높인다.

둘째, 공동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민자 수용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Ross & Mirowsky, 2009). 정착국의 시민이 이민자 범죄의 잠재적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클수록 반이민자 인식이 커진다고 한다(Chandler & Tsai, 2001). 특별히 상호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와 환경에서 이민자와의 만남이나 접촉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켜 이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한다(Pettigrew & Tropp, 2000).

셋째, 사회적 요인 중의 하나로 인적교류 이론(Contact Theory)이 있다(Quillian, 1995). 이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이민자 집단이 정착국에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경우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면, 지속적인 교류나 접촉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적개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Allport, Clark, & Pettigrew, 1954). 지역 내 이민자의 밀도가 높을 경우, 또는 대규모 집단으로 가 사회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반이민자 정서도 같이 커진다는 것이다(Gang, Rivera-Batiz, & Yun, 2002).

넷째, 문화적 동질감이나 친숙함은 친이민자 수용인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문화적 친밀감(cultural affinity)은 다양한 학자에 의해 증명된 반이민자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Espenshade & Calhoun, 1993). 문화적 동질감은 반이민 정서를 완화시키고 친이민자 정서를 만드는 긍정적 영향력을 지닌 대표적 요인이라고 한다(Sides & Citrin, 2007). Chandler & Tsai(2001)는 문화적 요인 중에서 언어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영어사용권 국가에서 이민자가 영어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공통의 언어라는 측면에서 문화적 공유가 약하다면 이는 반이민자 정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론은 국내 경제적 여건, 경제적 지위나 입장, 그리고 해외투자 관련 요인의 크게 3가지로 대분된다. 첫째, 우선 경제적 요인론에 의하면, 정착국에서 한정적이고 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 상황이 경제상황과 결합할 때 이민자에 대한 갈등과 편견이 증폭한다는 관점이다(Quillian, 1995). 국내 경제적 여건이라는 변인은 국내 경기적 상황과 경제발전이라는 상황과 결부되어 작용한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시장, 주택시장, 노동시장 등 시장의 종류에 따라 경제적 불안정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경제 불안정이 큰 상황은 즉시 반이민자 정서로 연결된다고 한다(Hernes & Knudsen, 1992). 국가경제의 불황기에는 이민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이 양산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Passel & Fix, 2004). 경제적 상황이 좋은 시기거나, 또는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계층은 이민자에게 호혜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을 보다 세분하여 거시경제지표는 가 반이민자 정서에 영향을 주지만, 경제의 개별적인 지표는 반이민 정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Fetzer, 2000).

둘째, 경제적 지위나 입장이라는 변인은 이민자와의 경제적 경쟁 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친이민자 인식 형성에서 의미 있는 요인이 된다. 경제적 경쟁 상황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숙련 노동자층은 비슷한 부류의 저숙련 이민노동자에게 적개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Scheve & Slaughter, 2001). 정착국의 기존 노동자와 이민노동자 간 동일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정착국 저소득 노동자의 실업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 노동계층의 입장에서는 이주민과 중첩 및 갈등이 유발되는 경제적 경쟁은 반이민자 정서형성의 원인이 된다(Gang, Rivera-Batiz, & Yun, 2002). 대체로 경제적 요인 중 직업지위, 세금,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의 충격은 반이민정책을 강화하는 영향이 있다고 한다(Citrin, Green, Muste et al, 1997).

셋째, 해외투자 관련 요인으로 이민자 출신국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나 원조 시 생성된 인식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투영된다고 한다(Rustenbach, 2010). Rustenbach(2010)는 저소득 국가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나 투자를 설명하는 해외투자이론을 이용하여 이민자의 수용인식 변화를 설명

하였다. 공여국 국민은 원조국의 열악한 여건이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게 되면, 이들 국가에 대해 연민이나 배려의 인식이 형성되고, 해당 국가출신의 이민자에게는 친화적인 수용성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Rustenbach, 2010).

3) 정치적 요인

정치적 정향요인은 이민자 정책과 이민자 수용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한다(Citrin et al, 1997). Bartels(2002)와 Green et al(2002)은 정당소속감이 이민자 정서나 수용인식의 주요 변인이라고 한다. Pratto & Lemieux(2001)는 정치적 대화나 토론 속에서 이민이라는 의미가 변질되고 조작된다고 한다. Van Oudenhoven et al(1998)과 Verkuyten & Thijs(1999)에 의하면, 이민자를 둘러싼 다문화주의는 인종의 차이와 존재를 인식하는 문화적 개념이면서도 사회구조와 형평성에 관한 정치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정치적 정향(Sides & Citrin, 2007)은 이민자의 수용인식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체로 보수우파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경우 반이민 정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Hainmueller & Hiscox, 2007; McLaren, 2001). 이처럼 정치적 요인은 이민자에 대한 수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표 1〉 선행문헌의 정리

요인 구분	하위요인 구분 및 설명		저자	Rustenbach(2010)의 이용변수(hard data)	반이민자 정서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문화적 한계	Chandler & Tsai(2001) Espenshade & Calhoun(1993) Sides & Citrin(2007)	차별의 경험	-
			사회통합	Hooghe et al(2006) Ross & Mirowsky(2009)	개인 간 상호신뢰
	지역적 인간 신뢰	-			
	가족과의 공동 주거	+			
	공동체안전	Ross & Mirowsky(2009)	개인의 야간 안전인식	+	
교류접촉 (Contact Theory)		Allport(1954) Berry(2006) Chandler & Tsai(2001) Gang, Rivera-Batiz, & Yun(2002) Levine & Campbell(1972) Pettigrew & Tropp(2000) Quillian(1995) Tajfel & Turner(1979)	지역별 이주민 수	+	
		국가별 이주민 수	+		
경제적 요인	경제적 경쟁	국내경제 여건	Hernes & Knudsen(1992) Passel & Fix(2004)	지역 실업률	+
				지역총생산	-
				국가 실업률	+
				국가의 GDP	-
	경제적 지위	Citrin et al(1997) Gang, Rivera-Batiz, & Yun(2002) Quillian(1995) Scheve & Slaughter(2001)	과거 5년 동안의 개인 실업 경험	+	
			인구 1인당 소득	-	

	해외투자		Rustenbach(2010)	국가의 직접 해외투자	-
정치적 요인	정치적 이념 (Political Affiliation)		Bartels(2002) Citrin et al(1997) Green et al(2002) Hainmueller & Hiscox(2007) McLaren(2001)	정치에 대한 개인적 관심	-
			Pratto & Lemieux(2001) Sides & Citrin(2007) Verkuyten & Thijs(1999)	개인의 좌우이념 편향	+
				국가의 좌우이념 편향	+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육	인적자본 (Human Capital)	Card & Dinardo(2001) Chandler & Tsai(2001) Citrin et al(1997) Espenshade & Calhoun(1993) Gang, Rivera-Batiz, & Yun(2002) Hainmueller & Hiscox(2007) Hainmueller & Hopkins(2014)	개인의 교육수준	-
	소속 집단	사회계층	Schlueter & Wagner(2008)	연령	
		이민자 원 소속국가	Ward & Masgoret(2008)	이민자 출신국의 인지도	

주) Rustenbach(2010: 56) 논문의 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문을 보강하여 수정·정리함

4)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시민의 교육수준, 소속 인구집단, 그리고 수용인식의 대상자인 이민자의 민족이나 출신국가 변수로 대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Citrin et al(1997)에 의하면, 정치적 요인보다는 경제 요인과 개인특성 요인이 반이민정서를 더 증가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가장 많이 대두되는 변인은 이민자를 인식하는 주민의 교육수준이다.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반이민자 정서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널리 분석되어 왔다(Gang, Rivera-Batiz, & Yun, 2002; Hainmueller & Hiscox, 2007). Hainmueller & Hopkins(2014)는 이민에 따른 친사회적인 성향(sociotropical impact)의 영향력을 논의하면서 교육수준의 증가는 친이민정서 형성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은 자기민족 중심주의의 정도가 낮고(Espenshade & Calhoun, 1993),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며, 이민자의 경제적 영향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지한다고 주장한다(Card & Dinardo, 2011; Chandler & Tsai 2001; Citrin et al, 1997). Citrin et al(1997)은 나이와 달리,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증가할수록 반이민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인다고 한다. 노인 계층보다 젊은 계층이 학력수준이 높으며, 젊은 계층은 이민자에게 더 우호적일 수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인 인구집단별로 이민자의 수용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정착국에 원래부터 있던 주민집단보다 앞서 옮겨온 선 이민자 집단이 오히려 새로운 후발 이민자를 반대하는 정서가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Schlueter & Wagner, 2008).

셋째, 이민자에 대한 수용인식은 어떤 이민자들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뉴질랜드의 2000년 가계를 표본으로 하여 설문한 결과,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에 대한 긍

정적 정서를 발견하였는데, 특히 호주와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에 대한 호의가 컸다고 한다(Ward & Masgoret, 2008). 이처럼 출신지역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이민자 인식에 주요 영향요인이다.

2. 위협, 이기심, 이민자 수용인식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심리적인 요인은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한다(Dovidio & Esses, 2001). 국내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미진하지만, 해외에서는 특히 개인 이기심은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의사를 형성할 때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었다(Brodsky & Sniderman, 1977; Citrin & Green, 1990). 자기이기심에 근거한 위협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이민자 수용인식의 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Stephan, Ybarra, Martinez et al(1998)은 이민자와 정착국 시민 간 관계에서 이민자 수용인식을 설명하고자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갈등양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민자의 수용인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갈등의 전개과정을 명확히 하도록 Stephan et al(1998: 560)은 편견이 낳는 결과적인 개념으로 위협을 제시하며 편견의 통합적 위협이론(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을 주장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4가지의 위협은 권력, 자원, 복지에 대한 실질적 위협, 상징적 위협, 접촉집단에 대한 우려로서의 위협, 부정적 인식의 고착화 위협이다(Stephan et al, 1998).

이민자와 수용국의 시민 간 상호 위협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 위협은 경제적, 비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이 두 부문에서 현실적이고 상징적으로 발생된다고 한다(Jackson, Brown, Brown et al, 2001; Quillian, 1995). 특히 경제적 위협은 그것이 실존이든 상상 속에 존재하든 엄연히 강력한 반 이민자 정서를 만든다고 한다(Runciman, 1966). 이와 같은 위협은 갈등이론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며(Levine & Campbell, 1972), 정치적·경제적 위협이 해당 이론의 주요 초점이다. 반면, Malhotra, Margalit, & Mo(2013)은 미국인들이 이민자들로부터 받는 경제적 위협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첨단기술산업의 종사자들은 그 이외의 종사자들에 비해 이민자와의 경제적 경쟁으로 인한 미국인 피해를 약 10% 더 높게 인지한다고 분석하였다(Malhotra et al, 2013).

Citrin et al(1997)은 경제적인 관심사가 이민자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호혜적인 이민정책에 반대하는지의 여부(Zaller, 1992) 또는 나쁜 경제상황을 인지한 사람들이 친이민자정책을 반대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Citrin et al(1997)은 경제적 고충과 같은 물질적 이기심에 근거한 판단이 이민자에 대한 수용의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물질적 이기심에 근거한 실질적 손해는 위협으로 다가와 이민자 수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이다.

반면, McLaren & Johnson(2007)은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상징적 위협의 존재, 그리고 친사회적 성향에서 해석할 때 경제적으로 지역이나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의 유발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은 반이민자 정서와 연계된다고 한다. Kinder & Kiewiet(1981)은 개인의 경제적 환경여건만이

반이민자 수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거시적 경제성과에 대한 친사회적 성향(Wilkes, Guppy, & Farris, 2008)도 반이민자 수용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민자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성향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지만 더 넓게는 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우려에 대한 개인의 성향에 반영되면서 이민자 수용인식의 차이가 발생시킨다. 따라서 개개인의 이민자 정서는 공동체와 개인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형성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이기심과 위협을 측면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이민자 수용의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기존 연구문헌의 시사점

국내에서 이민자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어떤 인식경로를 통해 수용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민자 수용에 대한 인식의 연계 고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민자에 대한 수용이나 불수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면밀히 고찰하지 않았다.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경제적 위협과 같은 손실 요인이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앞선 선행연구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으며, 이를 본 연구의 분석틀로 모형화하기 위한 함의를 아래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첫째,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개인에 대한 인식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그동안 이민자 연구는 개인수준과 공동체 수준으로 분리하여 분석해왔다(Rustenbach, 2010). 선행연구들은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에서 분석단위를 달리하여 논의하였지만, 개인의 인식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연계될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 자신과 같은 개인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연계됨을 이해한다면, 이 둘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둘째, 반이민자 인식은 반드시 위협이나 손해와 같은 부정적인 개념과 관계되어 정립·분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는 이민자 거부 의식과 반이민자 수용인식을 편견, 불정성, 위협 등의 부정적인 개념과의 관계성에서 논의하였다. 예를 들면, 상징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또는 실제적인 위협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부정적인 시각 일변도의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거부와 수용 반대는 친이민자 수용인식과도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는 반이민자 수용인식을 다양한 부정적 개념과 결부시켜서 논의하면서도,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을 동시에 담아내는 모형을 구축하지 않았다. 이민자 수용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연계될 수 있기에 이를 동시에 포괄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이민자 정책에 대한 경제적 입장을 중시하는 상황을 개인이기심으로 측정하면서도(Brodsky & Sniderman, 1977; Citrin & Green, 1990) 공동체 사회를 위한 손익과 개인 손익 간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경향이 있다. 개인손익 중심의 이기심은 반이민자 인식을 증대시킨다면, 공동체적 이익의 고려나 이타심은 친이민자 수용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개인 입장에서 자기이기심에만 근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이민자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의 측면에서 공동체의 손익도 계산하는 상황이 반이민자 정서 또는 친이민자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의 측면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손익에 대한 인식 간 상호연계성을 포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기존 문헌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다양한 이민자 수용인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을 변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민자에 대한 개인 인식을 중심 분석단위로 하되, 이민자 수용인식의 긍정과 부정이라는 다양성을 고려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이타심과 자기심을 손익 관점에서 상호 연결한 포괄적 분석 모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Ⅲ. 분석방법론

1. 주요 가설과 분석 변수

1) 주요 가설

앞서 문헌 연구의 시사점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개인이 지닌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공동체와 나의 이익과 손해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로 부터 개인인식에 부합하는 또는 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정책적 대안이나 제도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인식의 연계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민자에 대한 수용인식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해의 관계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수용인식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 질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나와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에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이민자의 수용인식에 연계되는가?’ 이다. 이를 검증할 핵심 연구가설들은 아래와 같이 8개로 요약된다.

<가설 A-1 > 이주민 거부인식은 공동체이익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A-2 > 이주민 거부인식은 개인이익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A-3 > 이주민 거부인식은 개인손실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B-1 > 개인손실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손실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B-2 > 개인손실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익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C-1 > 개인이익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이익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C-2 > 개인이익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손실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D-1 >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이주민 차별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분석 변수

앞선 선행연구의 시사점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가 이용하는 분석단위는 개인수준이다.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의 수용과 관련한 분석은 2016년 5월 부산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원 에서 수행한 '전국다문화의식조사'로부터 1,000명의 개인이 응답한 자료를 재가공하여 이들을 연구표본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이용 변수는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이민자에 대한 38개 질문(요인분석 후 인권 관련 1개 설문 제외) 항목이다. 원 설문에서는 이미 사회, 경제, 인권, 유입, 정치, 차별, 교류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조사결과를 이민자에 대한 공동체와 나의 선호와 반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 유입, 교류 변수들로 묶고 나머지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변수들을, 정치적 변인으로 인권과 정치변수를 묶은 후, 이들을 나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로 구분하여 각 요인(factor)의 하부 변수로 배치하였다. 나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 구분에서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역에 대한 질문 중 구체적으로 나를 포함하지 않거나 특정하지 않는 폭넓은 질문은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익과 손실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2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개별 변수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기 위해 요인들의 하부에 있는 변수들에 대해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 수행 후 최종적으로 수많은 나와 공동체의 변수들을 분석할만한 수준의 변인 수로 줄였다. 사회, 경제, 인권, 유입, 정치, 차별, 교류라는 변수를 각각 나와 공동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9개의 변수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요인에는 개인의 사회적 인식, 공동체의 사회적 인식, 개인의 유입인식, 공동체의 유입인식, 개인의 교류인식이라는 총 5개의 변수가 작성되었다. 정치적 요인에는 공동체의 인권 인식, 공동체의 정치적 인식이라는 총 2개의 변수가 도출되었다. 정치적 인식의 경우 개인에게만 요구하거나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체 관련 변수로만 구성하였다. 경제적 요인에는 개인의 경제적 인식, 공동체의 경제적 인식이라는 총 2개의 변수가 작성되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의 5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이들 구축된 변수 간 연계성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변수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찾고 이를 검증하였다.

〈표 2〉 분석 변수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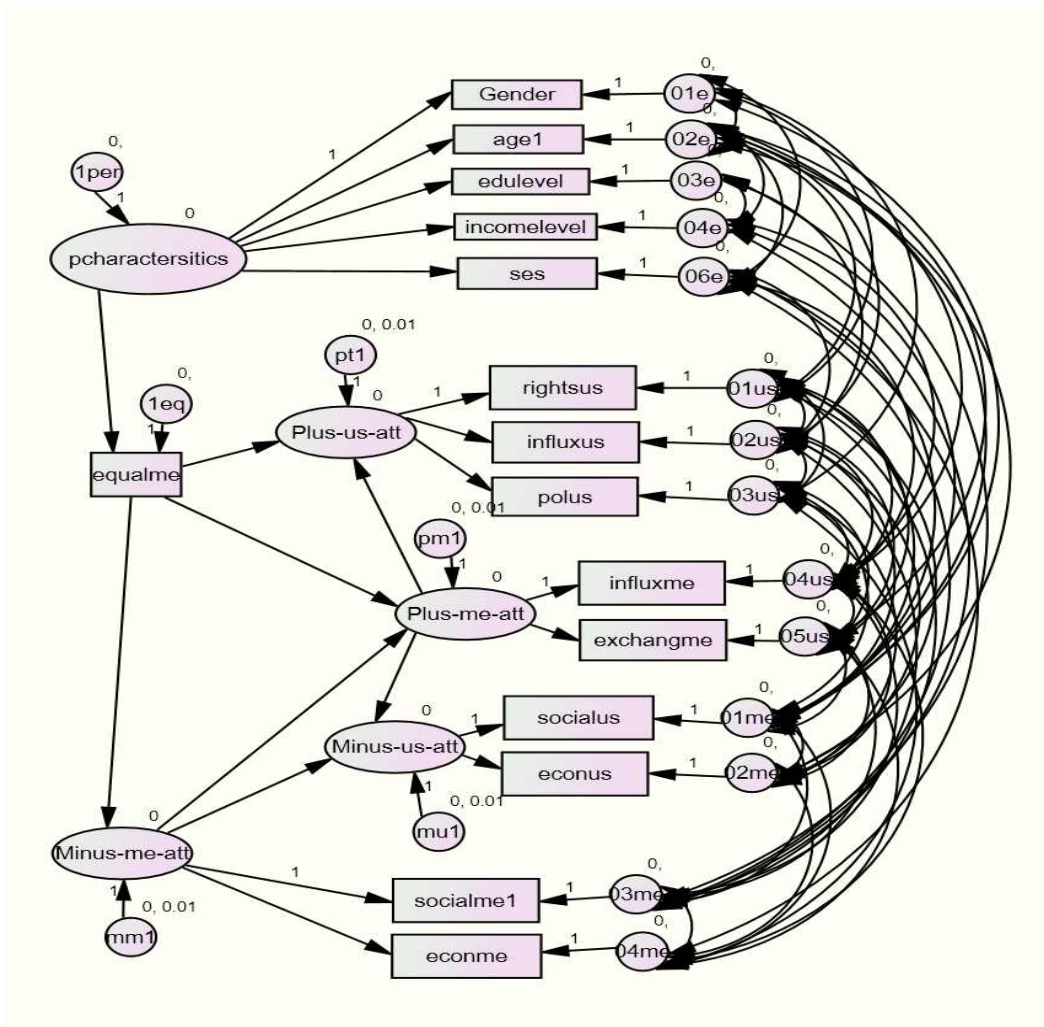
요인범주	하위 범주	요인분석후 변수명	나(me)/공동체(us)	영문변수명	설문 변수번호	문항	(+)이익; (-)손실	
이주민 거부인식		equalme	나(me)	groupact	6-1	이주민들끼리 별도 회합/행사참여에 불만	(-)	
				religionact	6-2	이주민 별도의 종교행사 불만		
				lowforeign	6-3	저소득 국가의 이주민은 낮은 학습/업무 능력		
				avoidnear	6-4	공공장소 이주민 동석 회피		
				avoidamuse	6-5	이주민과 공동시설이용 회피		
사회	사회	socialme1	나(me)	crimerate	1-1	이주민 증가로 범죄율 증가	(-)	
		socialus	공동체(us)	localimage	1-5	이주민 거주증가로 지역 /자기 이미지 하락 우려		
	교류	exchangme	나(me)	countryinterest	1-2	이주민이 한국에서 더 큰 이익 향유	(+)	
				finburden	1-3	이주민 지원의 국가 부담 증대		
				friendization	7-1	이주민 친구 선호		
				datewilling	7-2	데이트 가능성		
	유입	influxme	나(me)	familization	7-3	이주민의 가족화 찬성	(+)	
				helpadapt	7-4	이주민의 한국 적응 노력		
				moreforeign	4-1	이주노동자 더 유입 필요		
		influxus	공동체(us)	morewomen	4-2	결혼이주여성 더 유입 필요	(+)	
moreexpert				4-3	전문직 외국인근로자 더 유입 필요			
dereguhigh				4-4	업무 우수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국적 혜택 필요			
경제	경제	econme	나(me)	dereguexpert	4-5	고급기술/전문직 외국인근로자에 체류 및 국적 혜택 필요	(+)	
				jobshort	2-2	이주민의 일자리 위협		
				incomelevel	2-4	이주민의 수입 위협		
	econus	공동체(us)	나(me)	cowork	2-6	이주민 설립 회사 근무 회피	(-)	
				numjob	2-1	이주민으로 한국인의 일자리 감소		
				paylevel	2-3	이주민으로 한국인 임금 하락		
				econinvolve	2-5	이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강화		
정치	정치	polus	공동체(us)	finsupport	2-7	이주민 창업 지원 혜택 불필요	(+)	
				polsexpress	5-1	이주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가능		
				criticsociety	5-2	이주민의 한국 문제 비판		
				localdecision	5-3	이주민의 주민자치적인 결정과정에 참여		
				committefor	5-4	이주민 의사 반영을 위한 공식 기구 필요		
				contactwide	5-5	이주민의 공경해결을 위한 정치인, 기자 접촉 가능		
				polactivity	5-6	이주민 정당활동 허용		
				poldemo	5-7	이주민의 정치 집회 및 시위 참여		
	polrepresent	5-8	귀화외국인을 국민의 정치적 대표로 인정					
	인권		rightsus	공동체(us)	equaltreat	3-1	이주민도 한국인의 노동법적 권리 보장	(+)
					altuism	3-2	부당한 근로대우에 대한 노력	
					rightskeep	3-3	모든 체류외국인의 기본 인권 보장	
					unlawprotect	3-4	불법체류자도 보호조치가 필요	
rightshigh					3-5	현재 한국의 이주민 인권 보장은 높은 국제적 수준	제외	

2.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 모형은 이민자 정서에 대한 선호와 반감을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사고 간 연계적 인과성을 지니는 모형이다. 인과성의 추정을 위해 구조방정식의 식별력(identification)을 높이는 모형이 구축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의 수를 줄인 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공동체와 개인) × (선호와 반감)”의 4가지 요인으로 재분류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민자의 수용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공동체와 개인의 선호에 이르는 과정을 인과관계의 화살표(path)로 구축하였다. 동시에 위 모형에서 수용인식에 이르는 과정에 가장 기초적인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구축하고, 이 요인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 거부, 회피 등의 기본 인식을 경유하여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1〉 연구분석 모형



IV. 이민자 수용인식의 구조분석

1. 변수통계량 분석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을 위해 분석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우선 고찰하였다. 인구사회특성에는 성별(gender), 나이(age), 교육수준(edulevel), 소득수준(incomelevel), 사회계층(ses)의 변수가 이용되었다. 이주민 거부인식에는 '개인선호-이주민 거부(equalme)'의 변수가, 사회적 요인변수에는 개인선호-사회(socialme1), 공동체선호-사회(socialus), 개인선호-교류(exchangme), 개인선호-유입(influxme), 공동체선호-유입(influxus)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경제적 요인변수에는 개인선호-경제(econme), 공동체선호-경제(econus)가, 정치적 요인변수에는 공동체선호-정치(polus), 공동체선호-인권(rightsus)이 이용되었다.

인구사회특성에 따르면 응답자는 여성이 많은 가운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45세이며, 최소 20세 이상의 성인부터 최대 86세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3단계 즉 '전문대 재학/졸업'과 '대학 재학/졸업' 학위자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평균 60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분석변수의 통계량

요인범주	요인분석 후 변수명	구분	방향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구사회특성	gender	성별	1=남자 2=여자	1.513	0.500	1	2
	age1	나이	(+)1년	44.932	13.533	20	86
	edulevel	교육수준	(+)	3.682	0.922	1	5
	incomelevel	소득수준	(+)만원	603.917	783.294	0	9,000
	ses	사회계층	(+)	2.634	0.648	1	5
이주민 거부인식	equalme	개인선호-이주민거부	(+)	3.035	0.858	1.143	5.717
사회	socialme1	개인선호-사회	(-)	4.707	1.167	1.449	7.247
	socialus	공동체선호-사회		1.398	0.294	0.387	1.935
	exchangme	개인선호-교류	(+)	3.458	0.776	1.103	5.515
	influxme	개인선호-유입	(+)	2.766	0.736	1.010	5.052
	influxus	공동체선호-유입		3.092	0.773	0.934	4.668
경제	econme	개인선호-경제	(-)	2.688	0.892	1.004	5.020
	econus	공동체선호-경제	(-)	3.373	0.850	1.094	5.472
정치	polus	공동체선호-정치	(+)	3.902	0.841	1.224	6.120
	rightsus	공동체선호-인권	(+)	3.947	0.781	1.082	5.412

이민자 인식과 관련된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이주민 거부인식(equalme)은 평균 3.035로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선호-사회(socialme1), 공동체선호-사회(socialus)의 2가지 변수는 측정값이 증가할수록 더 부정적인 것으로 응답된 변수인데, 개인에게 더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평균값: 개인 4.707 vs 공동체 1.398). 사회적 요인의 변수 중 '개인선호-교류(exchangme)'와 '공동체선호-유입(influxus)'의 변수는 모두 평균값을 넘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개인선호-유입(influxme)'에 대한 변수의 평균값은 2.766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경제요인 중에서 '개인선호-경제(econme)', '공동체선호-경제(econus)'의 변수는 모두 해당값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평균값이 각각 2.688과 3.373으로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선호가 낮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요인 중에서 '공동체선호-정치(polus)', '공동체선호-인권(rightsus)'라는 변수는 모두 평균값이 3.90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식하였다.

2. 구조방정식 분석의 결과

1) 모형의 적합성 평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개인손실(Minus-me-att), 개인이익(Plus-me-att), 공동체손실(Minus-us-att), 공동체이익(Plus-us-att)'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 재설정하였다. 즉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선호가 부정적 인식은 손실의 요인으로, 그리고 이와 반대로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선호가 긍정적 인식은 이익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개인손실(Minus-me-att) 요인에는 개인선호-사회(socialme1)와 개인선호-경제(econme)의 변수가, 개인이익(Plus-me-att) 요인에는 개인선호-유입(influxme)과 개인선호-교류(exchangme)의 변수가, 공동체손실(Minus-us-att) 요인에는 공동체선호-사회(socialus), 공동체선호-경제(econus) 변수가, 공동체이익(Plus-us-att) 요인에는 공동체선호-인권(rightsus), 공동체선호-유입(influxus), 공동체선호-정치(polus)의 변수가 구성되었다.

해당 모형을 이용하여 각종 제약 상황에 따른 독립모형(independent model)과 포화모형(saturated model) 간 비교하여 현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관련 지표값을 살펴보았다. 이 실험적인 모형의 작성을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고찰한 결과 해당 지수값이 15 이상 나온 변인 간 관계를 수정하여 최종모형을 확정하였다.

〈표 4〉 모형적합성 평가

구분	3가지 적합지수								
	절대				증분			간명	
기준 지표	Chi-Squares	df	CMIN/df	RMSEA	NFI-delta	CFI	TLI	AIC	Hoelter 0.05
값	223.906 (p<0.000)	32	6.997	0.077	0.946	0.953	0.845	429.906	207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의 관점에서 각종 지수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CMIN/df 값이 6.997, RMSEA 값이 0.077로 통상 기준값인 0.07~0.08에 거의 부합하여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 중 NFI-delta, CFI 값은 각각 0.946, 0.953으로 나타나 기준값인 0.9를 초과하여 모형은 비교적 통계적으로 강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간명적합지수 중 AIC, Hoelter 0.05는 각각 429, 207로 나타나 모형은 비교적 간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탐색적 모형은 3가지 적합성 평가 기준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충분히 본격적인 분석이 가능한 모형으로 간주하였다.

2) 수용인식에 대한 영향력 관계

수용인식 중에서 이익과 손실을 중심으로 모형의 인과경로를 찾는 분석(Specification Search)을 수행한 후 관계를 설정하였다. 우선, 모형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특성(pcharactersitics)과 이주민 거부 의식(equalme) 간 영향관계, 그리고 개인이익과 공동체이익 간 영향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계가 유의수준 0.05 또는 그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또는 그 이하).

〈표 5〉 모형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Estimate	S.E.	C.R.	P	표준 회귀계수	가설채택	
이주민 거부 의식 (equalme)	←	인구사회특성 (pcharactersitics)	-0.176	0.331	-0.530	0.596		D1	No
개인손실 (Minus-me-att)	←	이주민 거부 의식 (equalme)	0.575	0.037	15.563	0.001***	0.980	A3	No
개인이익 (Plus-me-att)	←	개인손실 (Minus-me-att)	-1.897	0.791	-2.400	0.016*	-4.180	B2	(-)
	←	이주민 거부 의식 (equalme)	1.183	0.450	2.626	0.009**	4.441	A2	Yes
공동체이익 (Plus-us-att)	←	이주민 거부 의식 (equalme)	-0.382	0.094	-4.053	0.001***	-1.002	A1	(-)
공동체손실 (Minus-us-att)	←	개인손실 (Minus-me-att)	0.264	0.089	2.971	0.003**	0.571	B1	Yes
	←	개인이익 (Plus-me-att)	-0.819	0.491	-1.668	0.095(*)	-0.804	C2	(-)
공동체이익 (Plus-us-att)	←	개인이익 (Plus-me-att)	0.697	0.994	0.701	0.483		C1	No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이주민 거부 의식(equalme)이 강할수록 개인손실은 더 커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회귀계수는 0.575이며, 유의수준 0.0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거부 의식이 높을수록 개인이익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회귀계수 = 1.183, $p < 0.01$). 개인이익 증대와 개인손실의 증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주민 거부 의식이 커지더라도 공동체 이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는 인식하지 않았다. 즉 이주민에 의한 우려

가 증가하더라도 공동체 이익증대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약화되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회귀계수 = -0.382, $p < 0.001$). 한편, 이민자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개인손실(Minus-me-att)이 커진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이익(Plus-me-att)은 감소된다고 인식하였다(회귀계수 = -1.897, $p < 0.05$).

개인과 공동체의 손실의 측면에서도 두 손실인식 간 상호 연계성이 있다. 우선 개인의 손실이 증가할수록 공동체의 손실도 커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회귀계수 = 0.264, $p < 0.01$). 한편, 개인 이익이 증가할지라도 공동체의 이익도 동일하게 커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익의 증가를 인식하는 경우에 공동체의 손실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하였다(회귀계수 = -0.819, $p < 0.05$).

3) 효과 비교: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인 개인손실(Minus-me-att), 개인이익(Plus-me-att), 공동체손실(Minus-us-att), 공동체이익(Plus-us-att) 그리고 이주민 거부 의식(equalme)에 대한 효과를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리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공동체와 나에 대한 이익과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설정된 각 요인 간 유의미한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표 6〉 외생변인의 효과 비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구분	효과	외생요인(A)			
		인구사회특성 (pcharacteristics)	개인선호-이민자 거부 의식 (equalme)	개인손실 (Minus-me-att)	개인이익 (Plus-me-att)
이주민 거부 의식 (equalme)	총효과	-0.176			
	직접효과	-0.051			
	간접효과				
개인손실 (Minus-me-att)	총효과	-0.101	0.575		
	직접효과		0.980		
	간접효과	-0.101			
개인이익 (Plus-me-att)	총효과	-0.016	0.092	-1.897	
	직접효과		4.441	-4.180	
	간접효과		-1.091		
공동체손실 (Minus-us-att)	총효과	-0.016	0.077	1.817	-0.819
	직접효과			0.571	-0.804
	간접효과	-0.013	0.077	1.554	
공동체이익 (Plus-us-att)	총효과	0.056	-0.318	-1.323	0.697
	직접효과		-1.002		0.487
	간접효과	0.056	0.064	-1.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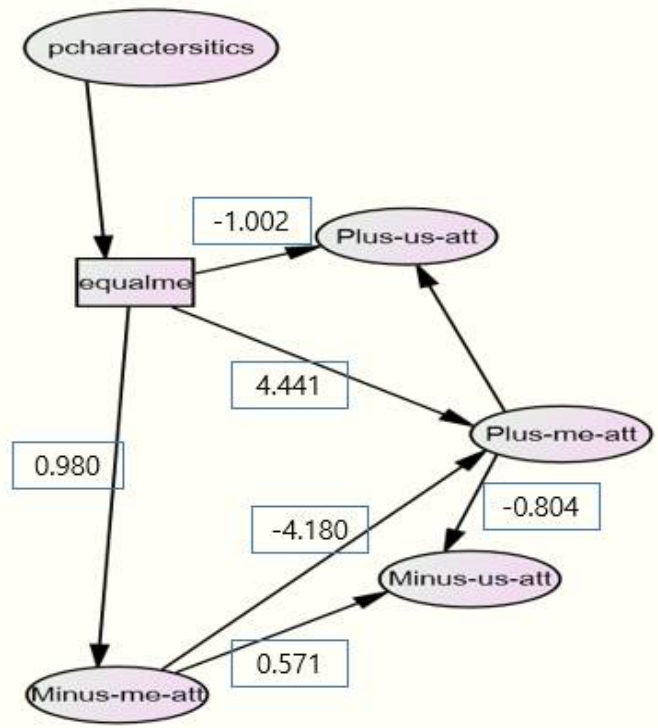
* 빈칸은 직·간접효과가 없어 총효과도 없는 경우; 대각선 안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분석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의 증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이가 많거나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 등이 높은 상황이라도 복합적으로 이주민의 거부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인구특성 범주의 세부 변수별로 이주민 거부의식에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개인이익(Plus-me-att)이 공동체이익(Plus-us-att)을 증가시키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익이 증가될 경우라도 즉각적으로 공동체이익도 같이 증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둘째, 이주민 거부의식(equalme)이 클 경우라도 공동체손실(Minus-us-att)이라는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주민 거부의식(equalme)이 클 경우, 공동체의 손실이 커진다는 인식(공동체손실(Minus-us-att) 회귀계수 = 0.077)이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만 존재하였다.

셋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민 거부의식(equalme)은 공동체이익(Plus-us-att)이 작아진다는 인식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총효과의 회귀계수 = -0.318). 또한, 공동체이익뿐만 아니라 이주민 거부의식(equalme)은 개인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존재하였다. 즉, 개인이익이 커진다는 인식(개인이익(Plus-me-att) 회귀계수 = 0.092)과 개인손실이 커진다는 인식(개인손실(Minus-me-att) 회귀계수 = 0.575)에 모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주민 거부의식이 클 경우, 개인 자신의 이익증진과 손실증대에 매우 민감하고 인식하는 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변인 간 직접효과(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각 요인 간 직접적인 영향력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첫째 이주민 거부 의식(equalme)이 클수록 개인이익(Plus-me-att)의 증가에 정(+)의 영향이 매우 강하였다(표준화 회귀계수: 4.441). 회귀계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 거부 의식(equalme)이 개인이익(Plus-me-att)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처럼 이민자에 차별적 인식을 지닐수록 개인이익을 더 옹호 또는 강화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주민 거부 의식(equalme)이 클수록 개인손실(Minus-me-att)이 크게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표준화 회귀계수: 0.980).

둘째, 두 번째로 표준화 회귀계수의 영향력이 큰 경로는 개인손실(Minus-me-att)과 개인이익(Plus-me-att) 간의 인식 관계이다. 이민자로 인해 개인손실(Minus-me-att)이 커지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에 개인이익(Plus-me-att)이 감소한다고 인식하여,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의 인식경로로 밝혀졌다(표준화 회귀계수: -4.180). 이민자로 인한 개인손실은 결국 개인이익이 감소하여서 자기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인손실(Minus-me-att)은 공동체손실(Minus-us-att)을 초래한다고 인식하였다(표준화 회귀계수: 0.571). 이민자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불이익은 공동체의 불이익으로 연결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개인이익(Plus-me-att)이 증가한다고 인식할 경우에는 공동체손실(Minus-us-att)이 감소한다고 인식하였다(표준화 회귀계수: -0.804).

결국 개인의 이익을 늘이면서 손실은 줄어든다는 인식은 공동체의 손실에 영향을 주는 인식의 경로가 있음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이주민 거부 의식을 포함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손실에 기반하여 공동체의 손실이나 이익을 고려하는 성향이 높았다. 반면,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있더라도 개인의 손익이나 이주민 거부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민자 수용 시 공동체 이익을 걱정하면서도 개인의 이익과 손실에 기반한 인식이 더 중요함을 밝혔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최근 세계적으로 해외이민자의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민자의 수용에 대한 결정요인과 원인을 찾는 학문적 노력이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친이민자 수용 인식과 반이민자 수용인식에 대한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는 이민자의 수용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하여 수용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요인에는 문화적 요인(문화적 한계), 사회통합, 공동체안전, 교류접촉(Contact Theory)이,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적 경쟁의 하부요인인 국내경제 여건과 경제적 지위, 그리고 해외투자 요인이 존재한다. 정치적 요인에는 정치적 이념(political affiliation)이 중요한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형성을 위한 교육 요인, 소속 집단 요인의 하부요인으로 써 사회계층과 이민자 원 소속국가의 요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요약된다.

이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나와 공동체의 반감과 선호에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이민자의 수용인식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탐색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개인손실(Minus-me-att), 개인이익(Plus-me-att), 공동체손실(Minus-us-att), 공동체이익(Plus-us-att)'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 재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3가지 적합지수의 기준에서 작성 모형은 강건한 가운데, 인구사회특성(pcharactersitics)-이주민 거부인식 및 개인이익-공동체이익 간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인과경로가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생변인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계산하고 직접효과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이민자에 대한 거부인식이 클수록 개인이익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개인손실이 크다고 느낄수록 개인이익이 잠식된다고 인식하였다. 이민자로 인한 지역이나 국가 등의 공동체 손실은 나의 이익과 손실을 중심으로 고려함을 알았다. 특히 이민자에도 불구하고 개인이익이 크다고 느낄 때 공동체손실은 감소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개인의 이익증진이 곧바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인식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인식과 태도 변화를 통한 정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박경돈, 2012)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우선 개인의 이기심이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에 앞선다는 점이다. 이민자 정책을 세울 경우에도 정부는 개인의 이익과 손실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를 고민한 후 이를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로 인해 개인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에는 개인이익이 증진된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이에 형평성 있는 이민자 정책을 세울 때 개인의 불이익이 없거나 감소하도록 설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해당 요인을 고려하는 정부의 행태적·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공동체의 이익이나 손실은 개인의 이익이나 손실을 고려할 때 중요한 변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탐색적 모형의 발견을 위해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 손익이 개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다양하게 구축한 후 검증하였으나, 연구 모형을 이용한 인식구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이민자에 대한 개인의 수용인식은 공동체를 고려하면서도 개인이익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사고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과거로부터 우리나라는 개인주의적 사고보다 공동체주의적 사고가 훨씬 우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인식구조가 개인주의적 사고에도 기반한다는 사실을 찾았다. 이에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이민자정책은 개인 실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가가 소수자 정책처럼 공동체수혜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자동으로 이민자 정책의 수용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다. 이에 공동체와 개인의 득실 모두 감안하고 이를 수용하는 이민자 정책과 제도가 설계될 때 이민자의 국민적 수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표본에 의한 것이 아닌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사회 전반에 일반화에는 제약이 있는 실험적이고 탐색적인 모형이라는 점을 밝힌다.

참고문헌

- 고재권. (2014).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박경돈. (2013). 산업재해와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수용성. 「지방정부연구」, 17(3): 1-22.
- 원숙연. (2011). 인종적 소수자 정책에 대한 수용성의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5(4): 327-351.
- 장지원·지영찬. (2017).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2 (3차): 다문화 수용성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Allport, G. W., Clark, K., & Pettigrew, 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 Bartels, L. M.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24(2): 117-150.
- Brody, R. A. & Sniderman, P. M. (1977). From Life Space to Polling Place: The Relevance of Personal Concerns for Voting Behavio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3): 337-360.
- Capps, R., Fix, M., Murray, J., Ost, J., Herwanto, S., Zimmermann, W., & Passel, J. (2004). Promise Or Peril: Immigrants, LEP Students and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Powerpoint Presentation.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Card, D. & Dinardo, J. (2000). Do Immigrant Inflows Lead to Native Outflows?. *American Economic Review*, 90(2): 360-367.
- Chandler, C. R. & Tsai, Y. M. (2001). Social Factors Influencing Immigration Attitud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General Social Survey. *Social Science Journal*, 38(2): 177-188.
- Citrin, J., & Green, D. P. (1990). The Self-Interest Motive in American Public Opinion. *Research In Micropolitics*, 3(1): 1-28.
- Citrin, J., Green, D. P., Muste, C., & Wong, C. (1997).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Reform: The Role of Economic Motivations. *Journal of Politics*, 59(3): 858-881.
- Dovidio, J. F. & Esses, V. M. (2001). Immigrants and Immigration: Advancing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378-387.
- Espenshade, T. J. & Calhoun, C. A. (1993).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toward Undocumented Immigr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2(3): 189-224.
- Fetzer, J. S. (2000). Economic Self-Interest Or Cultural Marginality? Anti-Immigration Sentiment and Nativist Political Movements In France, Germany and the US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6(1): 5-23.
- Gang, I. N., Rivera-Batiz, F., & Yun, M. S. (2002). Economic Strain, Ethnic Concentration and Attitudes towards Foreigners in the European Union.
- Green, D. P., Palmquist, B., & Schickler, E. (2004). Partisan Hearts and Minds: Political Parties and the Social Identities of Voters. Yale University Press.
- Hainmueller, J. & Hiscox, M. J. (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2): 399-442.
- Hainmueller, J. & Hopkins, D. J. (2014).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nual Review of*

- Political Science*, 17: 225-249.
- Hernes, G. & Knudsen, K. (1992). Norwegians' Attitudes toward New Immigrants. *Acta Sociologica*, 35(2): 123-139.
- Hooghe, M., Reeskens, T., Stolle, D. et al. (2006, August). Ethnic Diversity, Trust and Ethnocentrism and Europe: A Multilevel Analysis of 21 European Countries. In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Meeting.
- Jackson, J. S., Brown, K. T., Brown, T. N., & Marks, B. (2001). Contemporary Immigration Policy Orientations Among Dominant-Group Members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31-456.
- Kinder, D. R. & Kiewiet, D. R. (1981).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2): 129-161.
- Levine, R. A. & Campbell, D. T. (1972). Ethnocentrism: Theories of Conflict, Ethnic Attitudes, and Group Behavior.
- Malhotra, N., Margalit, Y., & Mo, C. H. (2013). Economic Explanations for Opposition to Immigration: Distinguishing Between Prevalence and Conditional Impac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2): 391-410.
- Mclaren, L. M. (2001). Immigr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Effect of Elites and the EU On Individual-Level Opinions Regarding European and Non-European Immigran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9(1): 81-108.
- Mclaren, L. & Johnson, M. (2007). Resources, Group Conflict and Symbols: Explaining Anti-Immigration Hostility in Britain. *Political Studies*, 55(4): 709-732.
- Pratto, F. & Lemieux, A. F. (2001). The Psychological Ambiguity of Im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Promoting Immigration Policy. *Journal of Social Issues*, 57: 413-430.
- Quillian, L. (1995).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6-611.
- Ross, C. E. & Mirowsky, J. (2009). Neighborhood Disorder, Subjective Alienation, and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1): 49-64.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Century England(Vol. 1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stenbach, E. (2010). Sources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 Europe: A Multi-Level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1): 53-77.
- Scheve, K. F. & Slaughter, M. J. (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1): 133-145.
- Settle, J. E., Dawes, C. T., & Fowler, J. H. (2009). The Heritability of Partisan Attachment.

-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2(3): 601-613.
- Sides, J. & Citrin, J. (2007). European Opinion About Immigration: The Role of Identities, Interests and Inform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3): 477-504.
- Stephan, W. G., Ybarra, O., Martinez, C. M., et al. (1998). Prejudice Toward Immigrants to Spain and Israel: An Integrated Threat Theory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9(4): 559-576.
- Tajfel, H., Turner, J. C., Austin, W. G. et al.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Organizational Identity: A Reader*, 56-65.
- Van Oudenhoven, J. P., Prins, K. S., & Buunk, B. P. (1998). Attitudes of Minority and Majority Members Towards Adaptation of Immigra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6): 995-1013.
- Verkuyten, M. & Thijs, J. (1999). Multiculturalism Among Minority and Majority Adolescents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 91-108.
- Verkuyten, M. & Thijs, J. (2002). Schoo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Performance, Peer Relations, Ethnicity and Gend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2): 203-228.
- Ward, C. & Masgoret, A. M. (2008).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New Zealand: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1): 227-248.
- Wilkes, R., Guppy, N., & Farris, L. (2008). "No Thanks, We're Full": Individual Characteristics, National Context, and Chang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2): 302-329.
- Zaller, J. 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박경돈(朴景墩):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록펠러행정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아동가족청 본청(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s/ Albany)의 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KIPA)의 정책서비스연구부 부장을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에서 교수로 근무 중이다. 주요 전공분야는 정책계량분석, 복지보건정책, 공공관리론, 미래연구 등이다(pkdon0525@pusan.ac.kr).

Abstract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Immigrant: The Linkage between Benefit and Loss for Individual and Community

Park, Kyoung Don

As immigration is a significant driver of population growth in the world,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how Korean accept immigrants into Korea society. The study classifi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immigrant acceptance into the four components: Social factor, Economic factor, Political factor, and Socio-Demographic factor. By using the secondary data with a thousand samples collected from the Social Science Institut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relationships between benefit and loss for individual and community is empirically tested in an exploratory model with a help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echnique. The model is statistically very robust in terms of three major indicators for SEM model fitness. As a result, Korean tend to accept the foreign immigrants on the judgment of personal benefit and loss as well as anti-immigration feeling. Placing a historical priority on the benefit and loss for community is no longer valid in this model testing of immigrant acceptance perception. Thus, a consideration of individual benefit and loss is very important in making a public program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design for immigration acceptance.

Key Words: Acceptance of Immigrant, Benefit and Loss for Individual and Community, Structural Equation Model, Anti-immigration, Exploratory Model